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2회)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차례

전도관 제5편
이만제단 시대 2부
2) 삼팔목운(三八木運) 시황출(始皇出)된 박태선 영모님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1. 감람나무

1. 감람나무란?
2. 누가 아담이긴자 구세주이신가?

一心合力全家族이 弓乙村을 차자보소
일심합력전가족 공을촌
牛聲之村見不牛로
우성지촌견불우

人言一大尺八寸을 恨心하다부露人生
인언일대척팔촌 한심 초로인생
弓乙村을 모르거든 呼天村을
공을촌 호천촌

先壽後에 呼母村을 更問하소
선신후 호모촌 갱문

〈출장론〉

“일심으로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공을촌을 찾아보시오. 소 우는 소리가 나는 마을에 소는 보이지 않는데 신앙촌(신천촌)만 있구나. 한심하다. 초로같은 인생들이, 공을촌 즉 신앙촌을 모르거든 하나님을 찾는 동네를 먼저 찾아 본 후에 엄마를 찾는 마을을 다시 물어보시오.”

주해) 인언일대척팔촌(人言一大尺八寸)은 신천촌의 파자다. 인언(人言)은 믿을 신(信)자다. 일대(一尺)는 하늘 천(天)자다. 일척(一尺)은 십촌(十寸)이니 일척은 십(十)이 되고 여기에 팔촌을 조립하면 마을 촌(村)이 된다. 그래서 파자를 조립해 보니 신천촌(信天村)이 된다. 하늘 천(天)자는 우려러불앙(仰)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촌은 결국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영모님의 신앙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격암선생은 흑시 미래에 후손들이 소 울음소리의 본고장에 대해서 혼동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정

확한 증거를 들어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억지 주장은 통할 수가 없게 된다.

소 울음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영모님은 구세주의 엄마이다. 이와같이 되어 출현하신 구세주님은 인류의 엄마가 되시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엄마의 참뜻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1. 감람나무

1) 감람나무 영모님

박태선 영모님의 집회에 가면 두가지가 느껴졌다. 첫째가 향취가 난다는 것이고 둘째가 이슬같은 은혜가 내린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 3단계의 완성된 성령인 이슬성령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성령의 3단계 중에서 마지막 세번째 단계의 은혜인 이슬같은 은혜를 받으면 감람(橄欖)나무라는 완성된 존재로 출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만제단(二萬祭壇)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후 얼마 안되어서 박태선 영모님을 감람나무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영모님은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한 감람나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슬같은 은혜가 나리고 또 향취가 난다고 증거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저가 백향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운 것이 감람나무와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백향목 같으니라(호 14:5-6)”

이와 같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슬같은 은혜를 내리는 사람이 감람나무이고(아름다운 것이 감람나무와 같고:6절) 또 향취가 나는 사람이 감람나무(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라:6절)라고 증거 했기 때문에 전도관 교인들은 박태선 영모님을 통해서 이슬같은 은혜가 나리고 또 향취가 진동하는 것을 알고 이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태선 영모님이 증거하는 감람나무는 박태선 영모님이 틀림이 없다고들 짐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후부터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을 ‘감람나무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2) 감람나무

그렇다면 과연 감람나무란 무엇인가?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한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니 다들 어리둥절하였다. 다만 이슬을 내리고 향취를 풍기는 분이 감람나무라고 증거 하시니까 그렇다면 박태선 영모님이 감람나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감람나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사명을 맡은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어 궁궁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감람나무를 말한 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단에 서실 때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당황한 것은 전국 기독교계였다. 그렇기 않아도 박장로가 단상에 설 때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기성교회를 통틀어 치는 통에 이와 같이 하시는 박태선 장로에 대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감람나무를 말하면서 전 기독교계에 선 전포고를 하시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감람나무가 박장로 자기’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기성교회 목사들은 기가 막힌 것은 말할 것 없고 더욱이 이를 어찌 대처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어 매우 당황하였다.

그뿐만 아니고 전도관의 어린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시간만 되면 나타나서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목사들은 전도관에서 온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청년들을 시켜 내 쫓고 폭행을 가해 피투성이가 되게 하여 돌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전도관 어린 학생들은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성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목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급히 회합도 가지고 또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성경해석책을 찾아서 감람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서 공부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전도관 어린 학생들이 찾아가서 질문하면 잠잠해 답변을 해주면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뽐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3)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람나무

기독교에서는 감람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째, 구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이까 하

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주여 아지 못하네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발리운 자 돌이온 세상의 주를 모셔왔는 자니라 하시니라.”(슌 4: 11-14)

이와같이 성경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전도관 소년들이 가서 관심도 두지 않았던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참구세주요, 이 예수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만 집착하여 그쪽으로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알리고 생각지도 않았고 알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다급해진 목사들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을 들여 보면서 연구를 한 결과 위에 적은 구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일제히 그와 같이 주장하고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목사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스가리서장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많이 또는 큰 능력자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록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미래에 출현할 주인공의 상징적인 대명사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 사라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민족을 이

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헤매다가 자기가 맡은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 해주었다. 모세의 대권을 인수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북지에 이스라엘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데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민족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였던 때 바빌로니아 왕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아 이스라엘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 총독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고국에 돌아와서 황폐화된 성전 등을 재건시키면서 이스라엘 재건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어떻든 이 두 명칭의 두 사람은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 가버린 흘러간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과거의 흘러간 인물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할 주인공으로 예언되어 있는 분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두 감람나무를 과거 구약시대에 흘러간 인물들의 상징적인 명칭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구약성경은 이미 지나간 성경이고 지금은 신약성경에 의해서 구원 받는 것이라고 떠드는 목사들이었다.

전도관의 어린 청소년들은 목사에게 “감람나무가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 사라진 분들의 상징적인 명칭이라면 왜 신약성경의 목시록 11장에도 똑같이 두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 목사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신 영모님은 기성교회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의 불은 다 꺼졌다. 목사들은 다 병어리 개새끼라고 연일 쳐버리는 것이었다.(시56장)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아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불각한 목자들이다(시56:10-11).”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사정없이 목사들을 쳐버리는 것이었다.*

항상 마음의 주인 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만물은 저절로 생명력 넘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化而欲作(화이욕작): 이 변화를 욕심껏 변화하려 하면

자연적인 변화를 거슬러 만물을 욕심껏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려 든다면

將鎮之以亡名之樸(장진지이망명지박): 대저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통나무(도, 순수본성, 진면목)로 진정시키나

나라는 자의식이 없고 차별심이 없으며 또한 이름도 없는 순수본성(통나무), 즉 우주심과 같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진정시키라는 것이다.

夫亦將樸(부역장지): 역시나 다시 한번 알차질 것은

智以靜(지이정): 그것이 본래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그 근본이 본래 고요함을 펴뜨 깨달으라는 것이다.

萬物將自靜(만물장자정): 만물은 대저 스스로 고요한 까닭이다.

만물이 본래 그대로 고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질없이 인위적이고 억지로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상(恒常)하나 함이 없고

우주 전체의 운행과 질서가 절대본체인 도(道)로서 유지 존속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입이 있어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니, 보통 사람은 이를 알 수 없어 함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侯王能守之(후왕능수지): 이 도는 제후나 왕은 능히 지킬 수 있으며

제후나 왕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 통치권자다. 그런 위치에 서면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무슨 세상적인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왕을 말한다. 도(양심, 순수본성, 진면목, 생명, 우주본체)가 절대적으로 마음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수본성이 능히 왕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而萬物將自化(이만물장자화): 만물은 대저 저절로 생장 변화하며

김주호 기자

본래 맑고 고요한 자기본심인 도가

| | | |
|---|---|--|
| 승리신문 | |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 | |
|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실재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 |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  |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 |



侯王能守之 후왕능수지

이 도는 제후나 왕은 능히 지킬 수 있으며

도덕경 37장 해설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어떠한 주위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 사는 사회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웃고 울며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이것을 흔히 인생이라 하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삶을 불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오욕 칠정(五慾七情)의 감정(感情)과 욕망에 얽매인 삶이라 하며, 밤과 낮이 오고가듯 희비(喜怒哀)가 교차하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잠시도 편안하고 고요할 날이 없다. 오죽하면 번뇌와 망상을 불난 집에서 타죽어 가는 줄 모르는 채 사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을까.

혹자는 이런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라 말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요새는 병들거나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워서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세태이다. 삶의 기복(起伏)이 너무 심하여 때론 기쁜 삶이 되어 비상하기도 하지만, 때론 우울한 삶이 되어 날개가 꺾여 추락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파다하다.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분전환을 통해 번뇌와 망상에서 해방되려고 시도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것은 잠시 잠깐은 잊을 수 있으나 또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김

없이 정신적 고통은 다시 찾아온다.

이러한 세속적인 고뇌와 갈등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면목(순수본성, 양심, 생명력, 생기(生氣)에 참으로 나쁜 영향을 끼쳐 건강을 해치고 단명하게끔 한다. 쉽게 말해 제 명에 못 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속에 내재된 참 본성은 항상 외부적 요인에 요동함이 없이 늘 자기중심을 가지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나, 왜 내 속에 또 다른 나는 외적인 삶에 미혹되어 늘 좌불안석 요동을 한다던 말인가.

도를 모

르는 무도인(無道人)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의 혼미한 늪 속에서 노자가 전하는 심오한 도의 구원의 빛줄기를 통해 빠져나오도록 해보는 것은 어떻게

여기! 지치고 곤한 마음과 정신이 청량한 가을 하늘처럼 탄박하고 가벼워지면서 고고해지지 않을까 싶다.

道恒亡爲(도항망위): 도(양심, 순수본성, 진면목, 생명, 우주본체)는 항

